

챗GPT에 5·18 물어보니... ‘그럴싸한 거짓말’로 왜곡 심각

전우원씨 사죄로 5·18 관심 많아지는데 역사 왜곡 끊임없이 확산

인터넷에 퍼진 왜곡 무분별 학습 지적... 가짜뉴스 막을 대책 절실

최근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사죄 행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5·18 왜곡·편향 또한 ‘챗GPT(ChatGPT)’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는 IT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연계구소(OpenAI)가 개발한 자연어처리(NLP) 대화형 인공지능 도구로,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챗봇’이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30일 서비스를 시작해 5일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넘겼으며, 최근에는 이용자수 1억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13일 챗GPT와 5·18 관련 대화를 나눠 보니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답변이 잇따랐다.

챗GPT에게 ‘5·18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질문하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점차 확대되다 군인과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답이 나왔다. “이후 군사정부는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시위 참여자들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구속하는 등의 무력 진압을 시행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학살 주범인 전두환씨가 “시민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무력 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

챗GPT의 5·18 왜곡 답변 보니

“시위 확대되다 폭력 사태로
북한 지원 받은 세력 활동
가짜 유공자 존재한다” 등
역사 왜곡의 재생산 창구로

다.

또 챗GPT에게 ‘5·18 때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된 게 사실인가’고 묻자, “북한군이 직접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몇몇의 북한 정부 지원을 받은 왼쪽 세력이 광주에서 활동했다”며 “이들은 군사정부와의 대립 상황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내놨다. 대표적인 5·18 왜

곡 사례인 ‘북한군 투입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설명한 것이다.

‘5·18 가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는 질문에는 “가짜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공자 명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이 왜곡된 역사나 가치관을 갖고 답변하는 사례는 챗GPT가 처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6년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 ‘타이(Tay)’는 “9·11 테러는 조작됐다”, “히틀러가 옳았다”, 나는 유대인이 싫다”는 등 발언을 쏟아내다 16시간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국내 스캐터랩이 지난 2020년 출시한 챗봇 ‘이루다’ 또한 동성애·장애 인 혐오, 성차별적 표현, ‘일베’에서 쓰이는 표현 등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다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인공지능이 5·18 등 역사 왜곡을 재생산하는 창

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챗GPT는 인터넷 곳곳에서 끌어 온 수천억개의 단어와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인터넷 도처에 5·18 왜곡·편향 게시물들이 퍼져 있는 탓에 인공지능이 이를 무분별하게 학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챗GPT는 사실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많아 ‘거짓말 제조기’라는 평도 받고 있으나, 막상 챗GPT의 답변을 보면 이같은 거짓말을 쉽게 분간하기 어렵다. 이에 챗GPT의 ‘그럴싸한 거짓말’로 포장해 5·18 왜곡·편향이 더욱 교묘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차중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인공지능이 5·18을 왜곡하는 계엄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인터넷 곳곳에 왜곡이 퍼져 있다는 증거다”며 “왜곡된 정보가 더 퍼지지 않도록 왜곡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을주민 10여명이 지적장애 여성 성범죄” 파문

“5년간 범행” 딸이 고소장 제출...장흥서 1명 재판·나머지는 불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 입장에 피해자측 이의 제기...검찰로 송치될 듯

한 동네에 사는 마을 주민 10여명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한명은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피해자측이 이의제기를 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전남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여성인 A(53)에게 성범죄를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장흥 마을 주민 10여명에 대한 ‘불송치’ 사건이 14일 검찰로 넘어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이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지적능력은 사회지수(SQ) 50(7세 수준), 지능지수(FSIQ) 58(8세 수준)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한명인 B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12월 B씨는 장애인중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0대인 B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집에서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 주던중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선고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나머지 인물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A씨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합의의 또는 애정관계에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적 장애인의 경우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고,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기는 힘들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입장이다. 진술만 있을 뿐 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의제기로 인해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의뢰 또는 불기소 혹은 기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흥=김유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건강체험 박람회 관심 높네 시민들이 1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회 동구 건강체험 박람회'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체중관리·식생활·건강검진 체험부스, 척추측만증 균형기기 체험, 인공지능(AI) 건강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마약류 먹여 아파트 주민 성폭행...관리사무소 직원 2심 감형

광주지법, 집행유예로 3년 선고

평소 호감에 있는 여성에게 몰래 마약류를 섞은 음료를 먹여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량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경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주민 B씨 몰래 마약류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넣어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A씨는 이날 B씨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몰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항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생화탕에 섞은 뒤 ‘코로나 주사 맞은 데에는 생화탕이 좋다’며 B씨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A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후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특수부 수사실무협의회’ 마약 범죄 총력 대응

광주·전남지역에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광주·전남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수사실무협의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11시 광주지검에서 광주·전남 경찰청, 서해지방경찰청, 광주 분부 세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27명이 모여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으로 밀수돼 압수된 마약류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신종 마약까지 들

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과 2월 광주·전남에서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69명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에는 40~50대 마약사범이 50%가량이었으나 최근에는 20~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유관기관은 신속한 정보공유와 합동대응에 나섰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 범죄나 인터넷 마약류 유통 범죄는 구속수사를 벌이고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8212	1	장성군 장성읍 수산길14, 2층 202호 [장성 2차부강아트빌] 84.7565㎡	아파트	147,000,000 147,000,000	미납관리비665,000원있음.토지보통등기있음
2022타경 8380	1	광산구 신가동 302-25 중흥아파트 202동 4층 401호 59.955㎡ [미납관리비약 1,400,000원있음]	아파트	147,000,000 147,000,000	2022타경78419
2022타경 8533	1	북구 삼각동 533 그린타운 105동1층106호 84.51㎡	아파트	216,000,000 216,000,000	
2022타경 8618	1	광산구 송정동 585 송정아파트 102동 5층 502호 62.9812㎡	아파트	144,000,000 144,000,000	
2022타경 8816	1	북구 양방동대로1041번길15, 115동 10층 1001호 [신용동, 용두주공아파트] 59.99㎡	아파트	181,000,000 181,000,000	2022년11월부터관리비미납됨.토지보통등기있음
2022타경 71395	1	광산구 신창로161번길34, 312동 14층 1403호 [신창동, 신창3차부영사항으로] 59.99㎡	아파트	239,000,000 239,000,000	
2022타경 73964	1	남구 재석로80번길36, 303동 12층 1204호 [봉선동, 봉선3차한국아파트] 84.9738㎡ [공유자박종삼 1/2지분전부, 공유자정병경 1/2지분전부]	아파트	951,000,000 951,000,000	관리비약220만원 미납됨
2022타경 77164	1	동구 태봉길13번길13, 101동 5층 501호 [산미동, 우등산수안채] 84.4182㎡	아파트	274,000,000 274,000,000	미납관리비약717,000원있음
2022타경 77294	1	나주시 남교로36-14, 110동 1층 104호 [송월동, 송월주공아파트] 49.96㎡	아파트	68,000,000 68,000,000	950원있음
2022타경 78448	1	담양군 창평면 유원리 산1 63792㎡ [공유자고영훈 1/3지분전부, 위성사신상분묘소재하는 것으로보이니전입로및접근로찾을수없어본토소재부락인불가[광정평가서참조]]	임야	129,710,400 129,710,400	자본매각, 분묘수기소재,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2타경 77942	1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566-21 614㎡ [공부]	답	234,548,000 234,548,000	양지
2022타경 78396	2	장성군 진면면 학림리 125-10 807㎡	답	67,032,000 67,032,000	공부사담이내현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2타경 75366	1	북구 일곡로 872-1 181.6㎡	대	838,181,730 838,181,730	2023타경55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 75519	1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1층101호25.59㎡	다세대	44,800,000 44,800,000			
	2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1층102호22.72㎡	다세대	39,800,000 39,800,000			
	4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1층105호52.49㎡	다세대	91,800,000 91,800,000			
	5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2층201호25.59㎡	다세대	46,200,000 46,200,000			
	8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2층205호22.72㎡	다세대	41,000,000 41,000,000			
	10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3층301호25.59㎡	다세대	46,200,000 46,200,000			
	11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3층302호22.72㎡	다세대	41,000,000 41,000,000			
	15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4층401호25.59㎡	다세대	46,200,000 46,200,000			
	16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4층402호22.72㎡	다세대	41,000,000 41,000,000			
	17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4층403호22.72㎡	다세대	41,000,000 41,000,000			
	18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4층405호22.72㎡	다세대	41,000,000 41,000,000			
	19	서구 삼촌동 537-2 마당재4층406호29.77㎡	다세대	53,700,000 53,700,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2타경 8137	1	동구 지산동 705-20 198.3㎡	대		555,988,440 555,988,4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동구 방갈로 43-1 1-3층각109.48㎡ 4층75.06㎡ [상업용] 34.7㎡ [위반건축물] 20동채 [주차장기능미유지, 청부원사실조치회신서참조]	근린시설, 주택, 창고			
	2022타경 72619	1	광산구 신촌동 829-1 630㎡	대		868,703,100 868,703,1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단, 이동식태이너장고대각 제외], 일반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문동채[별첨사실조회서참조]
			동소 829-1 소매점및기타사무소 1층269.36㎡ 2층224.64㎡ 제시외 차량 등 67㎡ [출입건보호1:공부상제1층근린생활시설] [소매점및기타사무소] [이내현황]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장] [사무소], 2층 "교회, 학원"]	근린시설			
	2022타경 76680	1	서구 시청로71, 1층 106호 [치병동, 상무리]	근린시설		462,000,000 462,000,000	2022타경77690
			나주시 상아4길22, 1층 145호 [및가람동, 사이계계체가터면상가터, 각구본건물위치와연접은 "건축물현황도" 등에의해특정가능[감정평가서참조]]	근린시설		471,000,000 471,000,000	
2023타경 2600	1	사용본거지:목포시 삼학로 233 2층 [신청동, 삼학빌딩] 등록번호: 전남04사3266 기종:지게차 연식:2008	자동차	21,000,000 21,000,000	포괄:광주광산구 소촌로149번길16 중앙대형주차장		

2023. 4. 1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보